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가치 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주소현*, 간기현**, 홍미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정부, 기업,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가치는 기업과 시민이 실행 주체가 되어 CSR, CSV, ESG, 사회적경제 등의 형태로 실현되어 왔다. 최근 사회적가치 함양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특강과 아카데미 과정 등의 개설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지 그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성인기 이후에 받은 사회적경제 교육, ESG 교육과 같은 사회적가치 함양 교육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응답 자료 684부를 활용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가치 지향성은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적가치 교육은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하여, 사회적가치 교육을 받을 경우 개인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가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맞춤형 사회적가치 교육 제공, 사회적가치 전문 교육장려 등의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적가치 교육, 친사회적 행동, ESG, 사회적경제

* 제1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사회적경제협동과정 교수.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적경제협동과정 강사.

*** 공동저자, 상지대학교 사회복지계학과 조교수.

1. 서론

‘사회적가치(Social Value)’ 관련 이슈는 2000년 후반, 사회적 양극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가치관 변화 등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해외사례를 소개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김용희 외, 2020). 이후 사회적가치가 점차 강조되면서 사회적가치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노력¹⁾들이 이어졌다. 또한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하려는 실천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기업’과 ‘시민’이 사회적가치의 실행 주체가 되어(Moore, 2013; Wieland, 2017),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등의 형태로 구현해 왔다.

사회적가치는 공동체를 주시하는데,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한다. 공동체적인 관점은 다른 사람 또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사회구성원 간의 연대성을 강조하며, 특정 집단을 향한 배제가 아닌 포용적 성장을 지향하고 통합에 그 가치를 둔다(김의영 외, 2023). 그렇기에 사회적가치를 추구할수록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사회적가치는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 친사회적 발언 행동, 협력, 조직시민행동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때문에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들은 다양한 사회적가치 교육을 개설하고 사회적가치 함양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 주목할만한

1) 사회적가치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2024.4.11),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2022.7.14.) 등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기본법안’ 발의: 문재인(2014.6.17.), 김경수(2016.8.17.), 박광온(2017.10.26.), 홍익표(2020.9.10.)

교육은 바로 ‘사회적경제’와 ‘ESG’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성장 중심의 논리를 펼치던 한국에서 경제적 이윤 창출이 아닌, 경제 이외의 가치를 함께 강조하며 사회적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적가치만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체제와 달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등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사람과 분배, 공동체 복원, 양극화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한다. 한국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분류하며, 구성원 간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상호협력하고자 힘쓴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그중 S(Social)는 사회책임경영의 모범기준으로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 실현, 차별 없이 공평하고 공정한 고용, 지속가능한 소비,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을 포함한다. 국내에서는 2022년 기업 ESG 모범기준이 개정되면서 인권 존중을 위한 사회책임경영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S(Social) 영역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가치 지향 정도와 사회적가치 교육이 친사회적 행동양식으로 실제적으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사회적가치’와 ‘교육’의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가치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사회적가치 개념을 고찰하거나(이도희, 2022; 한솔·조희진, 2022), 언론기사 속에 나타난 사회적가치 이슈의 의미연결망을 분석하는 등(김용희·한창근, 2020) 개념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사회적가치 지향, 교육,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실증 연구는 기초단계로, 사회적가치 관련 측정도구를 개발하거나(김민주, 2024), 종사자의 사회적가치 수준을 측정하거나(민경률, 2020),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와 가치제안, 교육과 협조적 행동, 친사회적 서비스행동,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김미정, 2005; 백종운 외, 2021;

오희성·김승희, 2020; 최영규·초의수, 2021; 최현정, 2012) 등 유사개념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거나, 개인의 환경과 행동의 관계에서 환경교육 경험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을 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가치와 교육,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가치는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성인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친사회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에 따라 친사회적행동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성인기 이후의 사회적가치 교육(사회적경제 교육, ESG 교육)이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간접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친사회적 행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과 공동체의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적가치(Social Value)’는 ‘사회적(Social)’과 ‘가치(Value)’의 합성어로, ‘사회적’이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은 사회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데, 개인과 사회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김의영 외, 2023). ‘가치’는 개인의 욕구 또는 개인이 중요시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발전 등 사회적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사회적가치 지향성’

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적 성향’으로, 협동과 평등주의(egalitarianism)에 기반하여 타인을 긍정적으로 기여하거나 협력적 행동, 공동체 행동을 하려는 이타주의적 동기를 내포한다(Messick & McClintock, 1968, Van Slyke, 2007). 따라서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개인과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목적이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로 정의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 이익의 지향, 봉사정신, 지역사회 공헌, 공유가치 창출 등 가치로운 행위(강경란·박철우, 2019)로 실현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주소현 외, 2023).

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기업 운영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지는데, 임·직원들의 사회적가치를 지향할 경우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경제적 이윤만을 창출하기 보다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 전체의 공익 증진, 사회적가치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보호,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기여하는 등 사회적목적을 함께 추구하며(간기현·조상미, 2023; 유경만, 2023),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착한 기업이라 일컫고, 좋은 기업으로 평가한다. 또한 투자자,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시 기업의 사회적가치 활동을 고려하는데(주소현 외, 2024), 윤리적 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책임투자를 실천하고 있다. ESG 우수기업 제품에 추가 가격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MZ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중심의 가치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특정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는 투자하지 않는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며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바야흐로 개인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에 따라 기업에 투자하며,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사회적가치 지향성 관련 국내 연구로는 사회적가치 지향성 척도개발 연구(김민주, 2024)를 비롯하여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교육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구체적으로 공예·디자인 교육 연구(박주현·안강현, 2021), 소규모학교 교육사례연구(이정표·황지원, 2024), 건축디자인 교육 연구(양형모·김미정, 2024), ESG 교육 연구(이선영·김승철, 2023)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원인을 탐색할 뿐, 본 연구와 같이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2) 사회적가치 교육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 의하면 특정 행동에 대한 결과를 학습할 경우, 개인의 정서와 인지적 특성이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특정 행위의 결과로 인해 특정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학습하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게 되어 긍정적 기대치를 최대화하는 반면, 부정적 기대치를 최소화한다(Bandura, 1986). 때문에 공공과 민간에서는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자 사회적가치 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사회적가치 교육은 개인의 사회문제 해결의 의지를 바탕으로 혁신성, 진취성, 사회적목적 추구성, 위험감수성 등과 같은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개인의 역량과 리더십을 향상시키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힌다(조상미 외, 2021). 따라서 사회적가치 교육은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가치 활동을 이끌어 우리 사회 전체에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5가지 사회적가치²⁾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그중 보건복지의 제공, 노동권의 보장,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공정거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경제 공헌, 민주적 의사결정 등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와 흡사하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 인권 보호, 안전한 근로환경, 양성평등 실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공공성 강화 등은 사회적 책임은 S(Social),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은 E(Environmental),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는 G(Governance)에 해당되는 영역으로 ESG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가치 개념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기 특강, 수료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으며(〈표-1〉),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 교육을 제공하고자 공공과 민간 모두 다채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사회적가치 교육은 최근에서야 논의가 시작되었기에, 성인기 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성인기 사회적가치 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전혜선 외(2017)의 연구가 유일했는데, 교육을 받을 경우 조직의 경제적 성과는 향상되지만 사회적 성과는 감소된다는 결과를 도출하며 일반화를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가치 교육의 효과를 밝힌 연구는 이은배·김찬미(2023)의 연구가 유일하였는데, 이마저도 중·고등학교

2)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적 가치: ①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②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③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④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⑤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증진, ⑥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⑦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⑧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⑨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⑩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⑪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⑫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⑬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⑭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일과 여가의 조화, ⑮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생의 교육 방안을 탐색한 연구로 성인 대상의 사회적가치 관련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성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적가치 교육을 사회적경제 교육, ESG 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은 ‘공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간의 긍정적 행동’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인간 상호작용 관계 기술, 사회적 기술, 사교성 등의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며(이지연 외, 2014), 타인을 도우려는 행위, 법규 및 규칙을 잘 지키는 행동, 자신의 이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하는 행동, 자신을 희생하며 약자를 구하는 행동,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돕는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김수정, 2013; 박해금, 2019).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와 발달단계는 Kohlberg(1969)의 도덕적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2가지 차원³⁾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보상과 종류’를 기준으로 돕는 행동의 동기와 의도에 따라 <표-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복종과 처벌지향)~2단계(상대적 쾌락주의)에서는 타인을 도우라고 지시해야 순응하며, 3단계(착한 아이 지향)~4단계(사회질서와 권위 지향)에서는 자발적으로 돕고자 한다. 5단계(민주적 법률)는 직접적인 상벌보다 호혜의 원칙을 따르며, 6단계(보편적 원리)부터는 이타적 행동을 시도하는데, 7단계(우주적 영생을 지향하는 단계)는 보상과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하며 이상적인 이타적 행동 단계에 이르게 된다.

3) 1차원: 자율과 타율로 분류 / 2차원: 보상과 종류로 분류

〈표-1〉 사회적가치 교육 예시

구분	교육사업명	교육시기	교육 기관 (위탁기관)	지원주체
사회적가치 함양 교육	사회적가치 함양 교육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회적 가치 측정 온라인 교육	2022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가치 교육	~2024년 지속	소셜혁신연구소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경제 특강	사회적경제 실무역량 강화과정	2019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
	EBS 'CLASS e' 위기 시대의 경제학, 사회적경제	2020년	EBS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금천구 사회적경제 상반기 역량강화 학교	2024년	금천구공동체경제 통합지원센터	금천구청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00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매년	지역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지자체
	산림분야 사회적기업가 육성 아카데미	2023년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이화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2021~2024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북구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SVI의 이해와 활용전략	2024년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서울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기업 ESG 경영교육	2022년	사회적경제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연구원
ESG 경영교육	ESG경영콘서트 교육과정	~2024년 지속	청주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 ESG 평가 대응실무	~2024년 지속	경영연구소 상승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ESG 전문가교육	ESG 아카데미, ESG 전문가교육과정	~2024년 지속	한국ESG경영개발원	한국ESG경영개발원
	ESG 전문가교육과정	~2024년 지속	한국ESG교육협회	한국ESG교육협회

*연구자 정리

〈표-2〉 Kohlberg의 도덕성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행동의 단계별 분류

도덕성발달 이론		사회적행동 분류	사회적행동의 단계적 변화
1	복종과 처벌지향	구체적으로 정의된 강화에 의한 순응	상벌 제시, 타인을 도우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순응하는 행동
▼			
2	상대적 쾌락주의	심리적 강화에 의한 순응	상벌 제시 없이 타인을 도와주라고 지시를 받았을 때 순응하는 행동
▼			
3	착한 아이 지향	구체적 보상에 의한 내적자발성	지도자의 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돕는 타인 사회적행동 (단, 구체적인 상벌을 예측할 수 있을 때만 한정)
▼			
4	사회질서와 권위 지향	규범적 행동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거나 소외당하지 않도록 사회규범을 지키려는 자발적인 행동
▼			
5	민주적 법률	일반화된 상호 호혜성	직접적인 상벌 기대 < 일반적인 교환의 원칙
▼			
6	보편적 원리	이타적 행동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단순한 동기에 의한 친사회적 행동
▼			
7	우주적 영생을 지향하는 단계	이상적인 이타적 행동	외적인 보상의 기대, 내적인 자기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돕는 친사회적 행동(유아는 권위자의 명령, 요구에 대한 복종 형태, 성인의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책임, 내적 자기강화에 근거함)

4)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적가치 교육,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로는 백종은 외(2021), 오희성·김승희(2020), 이승언·윤순진(2023), 최현정(2012)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가치와 교육이 친사회적 행동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가치와 개인의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할수록 이타적인 행동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규·초의수(2021)는 사회적가치를 지향할수록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구성원과의 상호관계에서 동료를 돕고자 하는 협조적 행동이 커진다고 보고하였으며, 백종은 외(2021)는 종사자에 대한 가치제안은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도움이 되게끔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다른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인 친사회적 서비스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사회적가치 지향성은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의 가치와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주로 학령기 아동, 청소년 등 성인기 이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협동에 관한 가치교육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미정(2005)의 연구에서는 가치 교육 활동을 받은 집단이 갈등 상황에서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게임 또는 협동 활동을 하는 동안 또래 간에 신체적으로 빈번히 접촉하며 도움을 주고받고 또래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르는 행동이 반복하는 등 친사회적 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현정(2012)는 가치탐구형 경제교육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일상속 다양한 가치 탐구 활동을 통한 경제교육은 가치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친사회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개인의 정서조절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오희성·김승희(2020) 역시 아동에게 그림책 역할극을 활용한 경제교육을 제공하고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도움주기, 의사소통, 주도적 배려, 접근 시도하기, 감정이입 및 조절 등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이 개인의 가치와 행동을 조절한다는 연구도 있었는데, 이승언·윤순진(2023)의 연구에서는 환경교육 경험이 온광 효과가 친환경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 만족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온광 효과가 친환경 소비 행동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가치 교육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가치가 함양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가치교육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성인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교육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전해선 외(2017)의 연구가 유일했는데, 사회적기업가 역량과 사회적가치 추구, 사회적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서 기업가를 위한 교육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경제 교육 정도는 경영 역량과 경제적성과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분히 많은 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경영역량은 기업의 경제적성과를 향상시켰다. 하지만 많은 시간 교육을 이수할 경우 경영역량은 기업의 사회적성과를 오히려 감소시켜 사회적가치 교육의 사회적성과 창출에 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가의 기업가 교육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해당 연구에서 교육의 종류를

세분화하지 못한 점을 들어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전혜선 외(2017)를 제외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다면 사회적가치 지향성은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사회적가치 교육(사회적경제 교육 및 ESG 교육)과 상호작용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속에서 사회적가치 교육의 정적인 조절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사회적가치 교육은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2-1. 사회적경제 교육은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2-2. ESG 교육은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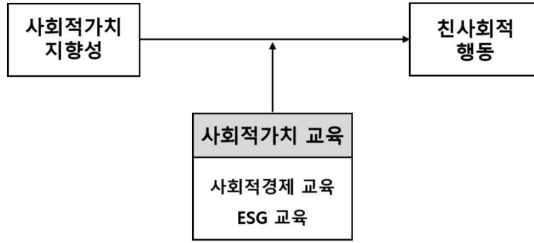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되, 전혜선 외(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적가치 교육을 사회적경제 교육 및 ESG 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독립변수로, 친사

회적 행동을 종속변수로, 사회적가치 교육(사회적경제 교육, ESG 교육)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그림-1〉).



통제변수 : 성별, 연령, 학력, 경제적 수준, 건강상태

〈그림-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 ~ 69세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의 전 과정은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한 연구진이 위원회 승인⁴⁾을 받아 수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지역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비례할당표집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온라인 서베이 업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연구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7일에서 11일까지 5일간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를 실시하여 설문의 내용, 설문의 논리적 흐름, 설문조사 시스템의 오류를 점검하였다. 이어서 본 설문조사로 연구대상자에게 설문 링크를 발송하여, 2023년 7월 12일에서 17일까지 6일간 자기보고식 설문 응답 형태로 총 684부를 회수하였다. 응답 결과에서 이상치나 결측치가 발견되지 않아 설문의 응답 자료 684부 모두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⁴⁾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Ewha-202306-0032-01)

3) 주요변수의 측정

(1) 독립변수: 사회적가치 지향성

앞서 사회적가치 지향성을 ‘개인과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목적이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로 정의하고, 공동체 이익의 지향, 봉사정신, 지역사회 공헌, 공유가치 창출 등 가치로운 행위를 추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잘 반영한 McClintock & Allison(1989)과 강경란·박철우(2019)의 사회적가치 지향성 총 6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798로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가치를 지향한다, 사회적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석하였다.

(2) 종속변수: 친사회적 행동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공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인간의 긍정적 행동’으로 제시하고, ‘타인을 도우려는 행위, 법규 및 규칙을 잘 지키는 행동, 자신의 이익이나 손실에 상관없이 하는 행동, 자신을 희생하며 약자를 구하는 행동,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돕는 행동’으로 구체화 하였다(김수정, 2013; 박해금, 2019). 이를 측정하기 위해 아동 대상으로 유사 개념을 측정한 이숙정(2001)의 척도와, 성인 대상으로 적용하고 5문항을 축약한 박해금(2019)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로 해석하였다. 변수의 Cronbach's α 는 박해금(2019)의 연구에서 .71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698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3) 조절변수: 사회적가치 교육

사회적가치 교육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시한 15가지 사회적 가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교육, ESG 교육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최근에 국내에서 시행된 사회적경제 교육, ESG 교육은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비교과 과정, 단기 특강, 유료 프로그램 등의 형태의 사회적경제 특강,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ESG 경영교육, ESG 전문가교육 프로그램으로 나타나(〈표-1〉), 본 연구에서는 해당 교육 모두를 사회적가치 교육으로 포함하였다. 교육의 측정은 성인기 사회적가치 교육과정 수료를 기준으로 더미 변수화(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음 = 0, 교육과정을 수료함 = 1)하여 분석하였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개인적 요인들을 통제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성별을 지목한 유연경·유미숙(2009)은 공감 능력이 높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효주·김수영(2009)은 연령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고 제시하였다. 박명희 외(2015)의 연구에서는 학력, 소득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상태가 나쁠 경우 일상의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황호성·유두한(2023)의 연구와,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수행에 제한될 수 있다는 박금령·최병호(2007)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요인으로 설정하였다.

〈표-3〉 주요변수의 측정

(N = 684)

변수명	측정 문항	측정 방법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출처
			1	2		
사회적가치 지향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음		.790		.798	McClin-tock & Allison(1989), 강경란·박철우, (2019)
	사회문제를 기업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음	전혀 그렇지않다 = 1, 그렇지 않다 = 2, 보통이다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5	.661			
	다른 사람에 비해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편임		.669			
	바람직한 사회적가치를 추구함		.758			
	수익성 외에 공익적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함		.729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653					
친사회적 행동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줌			.757	.698	이숙정(2001), 박해궁(2019)
	줄을 서서 기다릴 때 타인에게 양보함	전혀 그렇지않다 = 1, 그렇지 않다 = 2, 보통이다 = 3, 그렇다 = 4, 매우 그렇다 = 5		.752		
	물건을 살 때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주인(점원)에게 돌려줌		.611			
	장애인, 연세가 많은 사람을 도와줌		.805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함		.467			

사회적가치 교육	사회적경제 교육(사회적경제 특강/아카데미 수료)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않음 = 0
	ESG 교육(ESG 경영/리더십 과정/전문가 교육 수료)	교육과정을 수료함 = 1
통제변수	성별	남성 0, 여성 1
	연령	20대 이하(~ 29세) = 1, 30대(30~39세) = 2, 40대(40~49세) = 3, 50대(50~59세) = 4, 60대 이상(60세~) = 5
	경제적 수준	최하층 = 1, 하층 = 2, 중간 = 3, 상층 = 4, 최상층 = 5
	학력	초등학교졸업 이하 = 1, 중학교 졸업 = 2, 고등학교 졸업 = 3, 대학교 졸업 = 4, 대학원 졸업 = 5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 1, 나쁨 = 2, 보통 = 3, 좋음 = 4, 매우 좋음 = 5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일반적 특성 및 정규성을 확인하고자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수인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적가치 교육,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Statistics 22.0을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4〉).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절반을 차지하였고, 모든 연령층이 약 20%로 고루 분포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중간 376명(55.0%), 하층 227명(33.2%) 등의 순으로 이어졌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456명(6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145명(21.2%), 대학원 졸업 80명(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 354명(51.8%), 좋음 220명(32.2%) 순으로 이어졌으며, 배우자는 있음 360명(52.6%), 없음 324명(47.4%)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타 379명(55.4%), 기독교 155명(22.7%), 천주교 83명(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684)

	변수	빈도(명)	비율 (%)
성별	남성	342	50.0
	여성	342	50.0
연령	18~30세	138	20.2
	30~39세	138	20.2
	40~49세	138	20.2
	50~59세	138	20.2
	60~69세	132	19.3
경제적 수준	최하층	24	3.5
	하층	227	33.2
	중간	376	55.0
	상층	54	7.9
학력	최상층	3	0.4
	중학교 졸업 이하	3	0.4
	고등학교 졸업	145	21.2
	대학교 졸업	456	66.7
주관적 건강상태	대학원 졸업	80	11.7
	매우 나쁨	3	0.4
	나쁨	62	9.1
	보통	354	51.8
결혼 상태	좋음	220	32.2
	매우 좋음	45	6.6
	배우자 없음	324	47.4
종교	배우자 있음	360	52.6
	기독교	155	22.7
	천주교	83	12.1
	불교	67	9.8
	기타	379	55.4

2)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들을 5점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표-5〉), 사회

적가치 지향성은 $M = 3.14$, $SD = .62$, 친사회적 행동은 $M = 3.94$, $SD = .56$ 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들의 왜도는 $-.46 \sim .17$ 로 $|2|$ 이내로 확인되었으며, 첨도는 $-1.29 \sim .95$ 로 $|3|$ 이내로 확인되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계수는 $-.14 \sim .43$ 으로 $.8$ 을 넘지않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표-5〉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684)

구분	1	2	3	4	5	6
1. 연령	1					
2. 경제적 수준	.07	1				
3. 학력	.03	.25***	1			
4. 건강상태	-.14***	.34***	.08*	1		
5. 사회적가치 지향성	.12**	.18***	.09*	.16***	1	
6. 친사회적행동	.16***	.17***	.03	.13***	.43***	1
<i>M</i>	2.98	2.69	3.9	3.35	3.14	3.94
<i>SD</i>	1.41	.69	.58	.75	.62	.56
왜도	.012	-.08	-.17	.17	-.24	-.46
첨도	-1.29	.29	.27	.07	.95	.56

* $p < .05$. ** $p < .01$. *** $p < .001$.

3) 사회적가치 지향성, 사회적가치 교육,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검증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사회적가치 교육, 친사회적 행동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6〉, 〈그림-2〉, 〈그림-3〉). 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시 다중공선성 및 추정치 왜곡으로 인한 상호작용항 해석 오류를 방지하고자 평균중심화(Mean centerring)를 적용한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사회적가치 교육(사회적경제 교육 및 ESG 교육)의 상호

작용항을 투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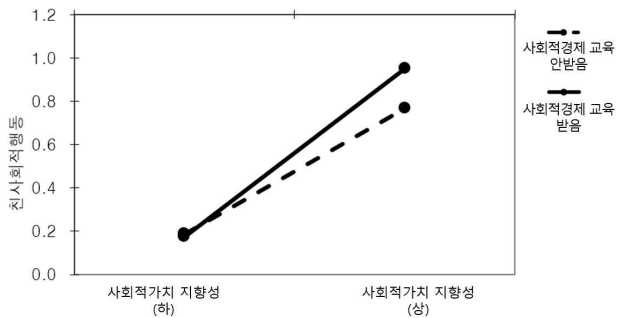
먼저 사회적경제 교육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Model 1 ~ 3에서는 회귀모형의 오차는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Durbin-Watson = 2.023), 사회적가치 지향성은 친사회적 활동을 6.0% ~ 22.3% 설명하였고, 단계적으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VIF가 10보다 작고, 공차한계가 .10를 초과하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Model 1: $F(5,678) = 8,670, p < .001$; Model 2: $F(6, 676) = 26.302, p < .001$; Model 3: $F(8,675) = 24.168, p < .001$).

Model 1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학력,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투입한 결과, 연령($r = .163, p < .001$), 경제적수준($r = .116, p < .01$), 주관적 건강상태($r = .118, p < .001$)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사회적가치 지향성) 및 조절변수(사회적경제 교육)를 투입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향성($r = .411, p < .01$) 이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이익과 자유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중요시하고, 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사회적 약자를 친절히 돕는 등의 행위를 통해 지역과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채영규(2021), 백종온 외(2021)의 맥을 같이하며, 서울 시민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가설 1을 채택하였다.

Model 3에서는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사회적경제 교육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r = .212, p < .01$), 사회적경제 교육을 받은 경우, 개인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킴을 도출하였다. 이는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에 대한 학습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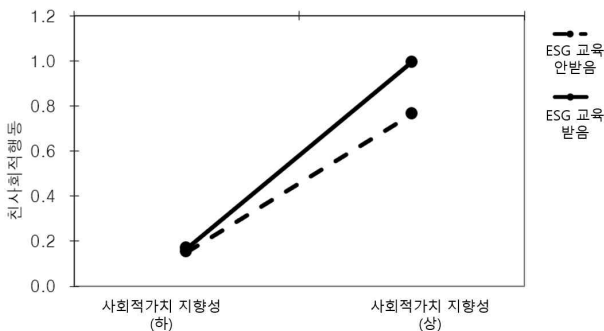
교육은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타인을 도우려는 행위, 자신을 희생하며 약자를 구하는 행동, 타인을 우선하여 돕는 행동 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이 개인의 가치와 행동을 조절한다고 보고한 이승연·윤순진(2023)의 연구와 일치하나, 사회적경제 교육이 사회적성격을 감소시켰다는 전해선 외(2017)의 결과는 반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해선 외(2017)의 연구에서 교육의 내용을 세분화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남긴 제언을 참고하여, 사회적가치 교육을 사회적경제 및 ESG 교육으로 구분하고, 사회적경제 교육은 사회적경제 특강,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수료로 측정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연구가설 2-1을 채택하였다.



〈그림-2〉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ESG 교육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Model 4 ~ 6에서도 회귀모형의 오차는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Durbin-Watson = 2.039), 사회적가치 지향성은 친사회적 활동을 6.0% ~ 22.0% 설명하였고, 단계적으로 설명력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VIF와 공차한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회귀모형은 적합하였다(Model 4: $F(5, 578) = 10.824, p < .001$; Model 5: $F(7, 676) = 30.530, p < .001$; Model 6: $F(8, 675) = 27.168, p < .001$). Model 4의 통제변수 투입 결과는 Model 1과 같았으며, Model 5에서는 사회적가치 지향성 및 ESG 교육을 투입한 결과, 사회적가치 지향성($r = .412, p < .001$)이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6에서는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사회적경제 교육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r = .241, p < .01$). ESG 교육을 받은 경우, 사회적가치를 지향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향상됨을 도출하였다. 즉,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하며, 교육을 받을 경우,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통해 서로 돕고, 양보하며, 친절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ESG 교육 특히, ESG 경영과정, ESG 전문가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승연·윤순진(2023)의 연구와 일치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 2-2를 채택하였다.



〈그림-3〉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행동의 관계에서 ESG 교육의 조절효과

〈표-6〉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가치 교육의 조절효과 검증

(N = 684)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Model 6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통제 변수	상수항	3.140	.184		17.019	3.458	.178		19.453	3.408	.178		19.159	3.140	.184		17.019	3.442	.181		18.973	3.355	.186		17.892
	성별(남성)	.014	.042	.013	.338	.033	.039	.030	.868	.039	.038	.034	1.005	.014	.042	.013	.338	.031	.039	.028	.808**	.034	.039	.031	.894
	연령	.007	.002	.163	4.315***	-.004	.001	-.106	-3.017**	-.004	.001	-.110	-3.154**	-.007	.002	-.163	-4.315***	-.004	.001	-.105	-2.988	-.005	.001	-.113	-3.191**
	경제적수준	.095	.034	.116	2.835**	-.059	.031	-.073	-1.915	.062	.031	.076	2.024*	.095	.034	.116	2.835**	.060	.031	.074	1.939	.060	.031	.074	1.948
	학력	-.012	.037	-.013	-3.29	-.027	.034	-.028	-7.76	-.026	.034	-.027	-7.73	-.012	.037	-.013	-3.29	-.029	.034	-.030	-8.48	-.024	.034	-.025	-7.12
	주관적 건강상태	.088	.030	.118	2.946**	.047	.028	.063	1.684	.044	.028	.060	1.610	.088	.030	.118	2.946**	.047	.028	.063	1.701	.047	.028	.064	1.725
독립 변수	사회적가치 지향성(a)				.375	.033	.411	11.504***	.551	.072	.604	7.642***					.376	.033	.412	11.481***	.585	.095	.642	6.149***	
	사회적경제 교육(b)				.079	.051	.054	1.557	.115	.052	.079	2.206*													
조절 변수	ESG교육(c)																.098	.066	.052	1.481	.169	.073	.090	2.326*	
	상호 작용																								
상호 작용	a x b																								
	a x c																								
R ²		.060				.214				.223				.060				.214				.220			
Adj R ²		.053				.206				.213				.053				.206				.211			
R ² 변화량		.060				.154				.009				.060				.154				.006			
F		F(5,678) = 8.670***				F(6,676) = 26.302***				F(8,675) = 24.168***				F(5,678) = 10.824***				F(7,676) = 30.530***				F(8,675) = 27.168***			
Durbin-Watson						2.023												2.039							

* p < .05. ** p < .01. *** p < .001.

V. 결 론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영향관계 및 사회적경제 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가치를 추구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왕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가치 교육을 사회적경제 교육, ESG 교육으로 구분하여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경제 교육은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가치 교육의 일환인 ESG 교육은 사회적경제 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가치 교육을 장려하고 확장해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영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최근들어 다소 주춤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가치 교육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규명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조절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 교육이 여전히 중요하며 오히려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교육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특강,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등을 지속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가오는 ESG 규제 대응 준비와 실제적인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없다면 그린워싱(Greenwashing)의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개인과 기업, 지역이 사회적가치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야 자연스레 우리 사회를 향한 헌신과 실천이 묻어날 것이다.

둘째, 보다 생동감 있는, 세분화된, 개별 맞춤형 사회적가치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적가치를 함양시키고 실현역량을 제고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환경·문화 영역에서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다년간 사회적가치 관련한 다채로운 과정을 제공해 왔다.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가 교육만으로는 간접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사회적경제 교육의 효과를 입증되지 못하였다(전혜선 외, 2017).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사회적경제 특강,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을 사회적가치 교육에 포함하여 ESG교육(ESG 경영, ESG 리더십, ESG 전문가 교육)과 함께 살펴본 결과, 사회적가치 지향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밝혀졌다. 이는 사회적가치를 보다 전문적으로 세분화하고, 또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들에게 가치 교육을 제공할 때 유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자신과 동료에 대한 성찰을 독려하고, 다각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선행연구(오희성·김승희, 2020; 최현정, 2012)를 토대로 보다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수강생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령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가치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유아기에는 권위자의 요구에 복종하는 형태로 비자발적인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면, 성인기에는 사회적 책임과 내적 자기강화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령과 같은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사고를 장려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윤리적 딜레마들이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시대, 스마트 기기 하나로 많은 것이 해결되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구성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잘 담당해 갈 수 있도록 돕고, 가치 갈등 상황의 우선순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가치 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오희성·김승희(2020), 최현정(2012)는 교육을 통해 또래와의 가치갈등 관계에 놓였을 때도 친사회적 행동을 실천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가치 함양을 위해서는 대면 활동과 팀활동을 활용한 현장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업 차원의 사회적가치 함양과 교육 제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기업의 고유한 사업이나 미션에 부합하는 사회적가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맞춤형 평가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SPC 프로그램의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회 성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적 인센티브로, 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다.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에 자율경영공시 제도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과 경영상태 등의 정보를 미래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한다. 이에 더해 종사자의 사회적가치 교육 여부, 교육 이수율, 종사자와 기업의 사회적가치 일치 여부를 조사하여 공시하게끔 하고, 공시한 기업에 정부지원제도 등의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세금 추가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면 기업들이 사회책임경영에 한 발 앞장서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기업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사회에 기여에 대한 거시적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집단을 위한 헌신과 기여는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으로 연결된다(한솔조희진, 2022).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서 상생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펼치고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가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려 하지만,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나에 따라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관심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개인과 기업, 지역사회 모두에 해당되는 구조적인 아젠다(Agenda)로, 개인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ESG 규제가 이슈화되면서 기업과 정부, 시민들이 ESG에 집중하듯, 사회적가치 관련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를 바탕으로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다시 발의하여 사회적 약자 배려를 배려하는 사회 구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추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사회적가치 지향성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가치 교육의 조절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살펴보던 교육의 영역을 성인기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Kohlberg(1969)의 도덕성발달 이론에 근거하여 전생애로 확장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청장년의 친사회적 행동 강화 요인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더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정 시점에서 획일적으로 살펴본 횡단적 연구로, 사회적가치 교육의 효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사회적가치 교육을 계획한 시점의 사전, 사후 측정과 함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한다면 보다 명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가치 교육을 사회적경제 교육 및 ESG 교육으로 제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가치 교육을 보다 다양하게 살펴보고, 교육의 시간, 횟수 등 양적인 측정과 함께, 교육 참여자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내면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참여 관찰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보다 생동감 있게 살펴보거나, 교육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2024년 10월 9일 접수, 11월 11일 심사완료, 11월 23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간기현·조상미. 2023. “사회적기업은 어떠한 경로로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적기업가 정신, 재정지원, 사회적기업 성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5(1), 97-130.
- 김민주. 2024. “사회적가치향성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5(2), 651-657.
- 김수정·김지호. 2013. “인터넷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국드라마 자막제작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6(1), 81-106.
- 김의영·미우라히로키·주병기·홍현우·이승철·박정민·신혜란·최인철·구자일·김수민·이준환·권현지·황세원. 2023. 『사회적가치 패러다임』. 서울: 박영사.
- 오희성·김승희. 2020. “그림책 기반 역할극을 활용한 경제교육이 유아의 의사결정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23-43.
- 유연경·유미숙. 201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25(1), 17-32.
- 이승언·윤순진. 2023. “온광효과가 친환경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중등학교 환경교육 경험의 조절효과.”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이지연·정익중·백종림·Batzolboo. 2014.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7, 125-155.
- 이현경·최수미. 2019. “조작적 조건화에 따른 상징적 모델링 학습과정이 초기 성인기 친사회적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4(3), 145-155.
- 이효주·김수영. 2009. “전래동화의 교육적 활용이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1), 83-99.
- 박명희·서봉언·김민영. 2015. “부모 소득 및 학력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언어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와 교사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복지연구』, 13(1), 37-54.
- 박금령·최병호. 2018. “주관적 건강 수준은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가: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보건연구』, 44(4), 25-34.
- 백종운·고미애·박경태. 2021. “종사원 가치제안(EVP)이 직무태도와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에 미치는 영향: 외식기업 종사원을 중심으로.”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7(4), 126-143.

- 박현주·안강현. 2021.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식물염색교육 사례연구 - 2020 KCDF 대학생대상 공예·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6(4). 157-166.
- 박해균. 2019. “사회적경제 조직 소비자의 친사회적 행동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윤리적 소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2(3). 93-117.
- 양형모·김미정. 2024. “IC-PBL 기반 건축디자인 교육 -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3(1)
- 이선영·김승철. 2023. “ESG기업가정신교육과 참여적 학습 방식이 ‘창의적 문제해결’ 및 ‘사회적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8(2), 201-219.
- 이은배·김찬미. 2023. “중고등학생의 사회적 가치교육 내용 및 방법 인식에 대한 성별, 급간별 차이 연구: IPA 중요도-수행도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35(1). 105-128.
- 이정표·황지원. 2024.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학교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 『교육사회학연구』. 34(1), 271-306.
- 장용희·이재신. 2016. “융복합 시대의 대학생의 이타행동과 관련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4(3). 361-372.
- 전혜선·채명신. 2017. “사회적기업가의 역량과 사회적가치추구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의 교육정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8). 165-177.
- 주소현·홍미나·간기현. 2024. “사회적 가치지향성과 친환경 태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연상의 조절된 매개효과.” 『소비자학연구』. 35(2). 121-142.
- 주소현·정성애·간기현·윤혜림. 2023. “지역주민의 삶의 질 영향요인: 사회혁신, 사회적경제 가치, 지역경제발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9(1). 123-147.
- 조상미·간기현·조정화. 2021. “사회적기업가 연구, 어디까지 왔는가?: 국내연구 경향분석.”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4(2). 137-173.
- 최영규·초의수. 2021. “사회적기업 총사자의 사회적 가치, 시장지향성이 서비스품질에 미치는 영향: 협조적 행동의 매개효과와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4(2). 175-200.
- 최현정. 2012. “가치탐구 중심의 경제교육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21.

한솔·조희진. 2022. “사회적 가치의 이론과 현실: CSES Round Table에 대한 소고.” 『공공정책연구』, 39(2). 123-166.

황호성·유두한. 2023. “가정환경수정 대상자의 주거환경,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기능이 일상생활활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지』, 15(1). 39-50.

Bandura, A., National Inst of Mental Health. 1986. *“Prentice-Hall series in social learning theory,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US: Prentice-Hall, Inc.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Goslin, D.A.,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Rand McNally, Chicago. 347-348.

Messick, D. M, McClintock, C. G. 1968. “Motivational bases of choice in experimental gam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1-25.

Van Slyke, D. M. 2007. “Agents or stewards: Using theory to understand the government-nonprofit social service contracting relationship.”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7(2). 157-187.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Value Orientation on Prosocial Behavior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Value
Education

*Joo, So-Hyun** · *Kan, Ki-Hyun*** · *Hong, Minah****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onsumer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realizing social values. Companies and citizens are actively realizing social values in the form of CSR, CSV, ESG, and social economy. Recently, various special lectures and academy courses have been opened for social value education received in Adulthood.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an individual's social value orientation on prosocial behavior. Furthermore, it aimed to examine the indirect effects of social value education such as social economy education and ESG education received after adulthood. To this end, a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684 survey responses from Seoul citizen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social value orienta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prosocial behavior. Second, social

* Professor, Dept. of Consumer Studies/Interdisciplinary Program of Social Economy, Ewha Womans University.

** Lecturer, Dept. of Social Welfare/Interdisciplinary Program of Social Economy, Ewha Womans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ocial Economy, Sangji University.

value education positively moderated the influence of social value orientation on prosocial behavior.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when receiving social value education, an individual's social value orientation strengthened prosocial behavior. Based on this,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s was emphasized and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were suggested, such as establishing institutional devices for promoting social values, providing customized social value education, and encouraging specialized social value education.

Key words : Social Value Orientation, Social Value Education, Prosocial Behavior, ESG, Social Economy.